

건·강·증·진

최근 우리나라 순환기질환 현황

지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21세기를 앞두고 현재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는 시기이다. 국민보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순환기질환의 과거와 현재를 개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순환기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순환기질환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순환기질환의 현황을 정확히 살피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국가보건정책에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건강유지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금세기에 격동하는 사회변천과 함께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요 질환도 변화한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가 해방이전의 전근대적 보건의료환경에서 벗어나자 주요질환으로 대두된 것이 순환기질환이다.

순환기질환이 세인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1960년대로, 고혈압성 심부전, 뇌출혈, 악성 고혈압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주요사망원인이었던 결핵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자 국민의 평균수명이 50세기를 넘기면서 본태성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따라 고혈압을 가진 환자의 수가 50세를 전후하여 여러가지 고혈압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그 본질이 증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있다하여도 즉시 치료에 착수해야 할 만큼 심한 증상이 있

는 일은 드물다. 심부전, 뇌출혈 등 합병증이 생겨야 비로소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는 고혈압의 함정이라 불린 말이 아닐 것이다. 1960년대에는 일반국민의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관심이 있다 하여도 치료수단도 거의 없었다.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이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은 시기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고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개발되었고, 우리 사회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효과적인 고혈압관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1990년대는 동맥경화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혈압 그 자체로 발생하는 고혈압성 심부전과 뇌출혈이



이 학 중
(단국대 내과 교수)

순환기질환의 주종을 이루어 오다가 1980년대 말부터는 국

들의 흡연률이 높으며,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요사이 늘어나고 있는 동맥경화성 질환을 흡연과 당뇨병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인자로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고 있던 인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이 알려지지 않은 인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증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고혈압과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있다. 「고혈압 환자 중에서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반이며,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중의 반이며, 치료받고 있으면서도 정

진술하였다. 미국의 경우를 우리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면 고혈압환자의 약 5%만이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보다 훨씬 적은 수효의 환자만이 정상혈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이 아직도 혈압을 정상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유지해야 한다는 치료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 치료하여 혈압을 정상수준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90년대인 지금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합병증 발생 전까지 뚜렷한 증상없는 것이 고혈압의 함정 고혈압·흡연·당뇨병 등이 동맥경화의 발생요인

있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고혈압관리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시기이며, 동시에 불충분한 고혈압관리의 후속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본다.

동맥경화성 질환은 고혈압만이 발생요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동맥경화성 질환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독 고혈압의 역할이 특별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소견이다.

순환기질환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를 본인은 자의적으로나마 고혈압기와 동맥경화기의 두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자 하며, 지금

내에서 시행된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고혈압성 심부전과 뇌출혈 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경색의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경색은 단순 고혈압보다는 동맥경화가 그 발생원인이 되는 병들이다. 동맥경화의 발생요인으로는 고혈압 이외에도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주 보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경색 환자는 구미 각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형적 고지혈증 환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임상가들의 공통인식이다. 우리나라 남자

상혈압까지 내려서 치료목표에 도달하여 정상혈압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반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고혈압환자의 약 3분의 1만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에게 고혈압환자의 몇 퍼센트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몇 퍼센트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다. 본인이 1980년대 중반에 시행한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전국 우수병원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약 10%만이 계속적으로 항고혈압치료를 받아 왔다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혈압환자의 대부분이 비록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경증 고혈압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증 고혈압은 비록 고혈압성 심부전, 뇌출혈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계속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본인이 우리나라 동맥경화성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아직도 고혈압이 갖는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으리라고 추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면에서 계속)

成人病新開 創刊17周年을 祝賀합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식회사

會長 韓光鎭
電話：七九三·六三五五

한국아스트라주식회사

社長 崔源洙
電話：五八七·一六三二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社長 禹正益
電話：四六〇九·一六〇〇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社長 李漢求
電話：六九三·四二五二

동서울병원

院長 柳聖熙
電話：九二六·九一七一

주식회사 의학신문사

社長 柳準植
會長 朴善奎
電話：四六七·二四三二

건강증진

최근 우리나라 순환기질환 현황

(11면에서 계속)

1993년 WHO와 국제고혈압 학회가 펴낸 "경증 고혈압의 치료지침"과 1992년의 미국의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JNC II에서 고혈압의 판정기준을 과거의 160/95mmHg에서 140/90mmHg로 끌어내린 것도 경증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뒷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과거의 고혈압 판정기준인 160/95mmHg 이상의 유병률을 환산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7~18%가 고혈압 환자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의 인구구조로 보아 이런 유병률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350만~400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993년도 사망

서는 과거 10여년 간 전체 뇌졸중이 사망원인 중 비율이 계속해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뇌출혈이 감소하고 있는데 뇌경색은 오히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는 경증 고혈압을 철저히 치료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인은 단언하고 싶다. 우리의 여러가지 생활여건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도 앞

종의 경우보다는 약하므로, 각종 동맥경화 위험 요인보다 철저한 제거가 요망된다. 1990년대의 중요한 순환기 질환은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사, 각종 부정맥으로 나타난다. 이들 순환기 질환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현재 일반국민의 순환기 질환

경증 고혈압의 철저한 치료가 중요하다

뇌경색발생률 증가원인은 경증 고혈압

경증고혈압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고혈압 환자 중 5%만이 정상혈압 유지
경증고혈압 정상혈압으로 내리는데 주력해야

받침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 우리나라의 순환기질환은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고혈압 환자, 흡연자, 고지혈증 환자, 당뇨병 환자, 과체중인 사람, 노년층이 다 동맥경화성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경색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의료현실은 아직도 많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가 그들의 병을 만족할만한 정도로 잘 치료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높아 가는 추세에 있다. WHO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을 1978년에는 성인인구의 8~18%로 잡았다가 1993년에는 15~25%로 늘려 잡고 있다. 우리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과거보다는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추리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고혈압 판정기준의 하향 조정, 기타 국민생활양식의 서구화에 따르는 여러가지 요인

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사망원인 중 뇌졸중이 16%, 심장병이 8.3%로 되어 있어, 순환기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전술하였다시피 뇌졸중 중에서는 뇌경색이 지배적이며, 심장병 중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지배적이어서, 양자에서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이 지배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지금 순환기질환의 전개과정 중 제2기에 속하는 동맥경화기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보건정책에 있어서나 개인 생활면에 있어서 동맥경화의 치료와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을 각 방면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맥경화의 위험요인 중에서도 특히 경증 고혈압을 정상혈압으로 내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실행가능하고 값이 싸기 때문이다. 동맥경화성 질환 중에서도 뇌경색은 고혈압치료로서 예방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보다 순환기질환 전개과정이 한 발 앞선 일본의 경우 심장병에 의한 사망이 18%인데 비하여 우리는 아직 8%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심장병에 의한 사망도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치료에 의한 예방 효과가 뇌졸

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 또는 정보 부족 상황에서 사는 많은 국민들은 충분한 보건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성인 병 홍보계몽기관은 이들을 계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의사윤리선언

-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삼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존중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한다.
-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는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

成人病新開 創刊17周年을 祝賀합니다.

가톨릭 중앙醫療院

醫務院長 金富成

電話: 五九〇二〇〇三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副會長 金鍾仁

電話: 四六四六五五四

일동제약주식회사

會長 李金器

電話: 五二六三三〇三

일양약품주식회사

社長 鄭度彦

電話: 九二二五二九二

제일약품주식회사

社長 韓昇洙

電話: 五四九七四五二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에너지

社長 成孝慶

電話: 五四七二七〇五六